논어 7편 술이 10장 · 원문·풀이

子謂顏淵曰：「用之則行，舍之則藏。惟我與爾有是夫！」子路曰：「子行三軍，則誰與？」子曰：「暴虎馮河，死而無悔者，吾不與也。必也臨事而懼，好謀而成者也。」

독음 · 자위안연왈 용지즉행 사지즉장 유아여이유시부 자로왈 자행삼군 즉수여 자왈 포호빙하 사이무회자 오불여야 필야림사이구 호모이성자야

쉬운 풀이(요약) · 쓰이면 나아가고 쓰이지 않으면 물러나는 태도를 안회와 나눴다. 군대를 이끌 때는 무모한 용기보다 두려움을 알고 계획하여 이루는 사람을 택하겠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謂 고할 위 위 / 顏 얼굴 안 / 淵 못 연 연

曰 가로 왈 / 用 쓸 용 용 / 之 갈 지 / 則 곧 즉

行 다닐 행 행 / 舍 집 사 사 / 藏 감출 장 장 / 惟 꾀할 유 유

我 자기 아 아 /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爾 너 이 이 / 有 있을 유

是 이 시 시 / 夫 지아비 부 부 / 路 길 로 로 / 三 석 삼 삼

軍 군사 군 군 / 誰 누구 수 수 / 暴 사나울 포 포 / 虎 범 호 호

馮 맨발로건널 빙 / 河 물 하 하 / 死 죽을 사 사 / 而 말이을 이

無 없을 무 무 / 悔 뉘우칠 회 회 / 者 놈 자 / 吾 자기 오 오

不 아닐 불 / 也 어조사 야 / 必 반드시 필 필 / 臨 임할 림 림

事 일 사 사 / 懼 두려워할 구 구 / 好 좋을 호 / 謀 꾀할 모 모

成 이룰 성 성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